

〈보툴리눔 독신 제제〉

대웅제약 나보타, 유럽허가 임박 국산 첫 美·유럽 동시진출

유럽의약품청 CHMP 승인 권고
“올 상반기 중 최종 허가 예상”

대웅제약의 자체 개발 보툴리눔 독신 '나보타' 사진의 유럽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웅제약은 지난 26일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의약품사용자문위원회(CHMP)로부터 나보타에 대해 허가승인 권고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나보타는 대웅제약이 2014년 국내에 출시한 보툴리눔 독신 제제로 일명 '보톡스'로 알려져 있다.

대웅제약은 미간 주름 적응증으로 나보타의 허가를 신청했다.

대웅제약은 CHMP의 이번 권고로 올 상반기에 최종 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HMP는 의약품의 유효성과 안전성 등 과학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 여부를 논의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기구다. CHMP의 권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집행위원회가 판매 허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집행위원회가 최종 허가 결정을 내리면 나보타는 EU 내 28개 국가와 유럽경제지역(EEA)의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3개국 등 유럽의 총 31개국에서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제약 선진 시장인 미국에 이어 유럽까지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월에는 국산 보툴리눔 독신 제품 중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품(FDA)의 허가



를 획득했다. 미국과 유럽은 전 세계 보툴리눔 독신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보', 유럽에서는 '누시바'라는 이름으로 파트너사인 에블루스가 판매할 예정이다.

전승호 대웅제약 사장은 “CHMP의 허가승인 권고는 나보타의 글로벌 대규모 임상에서 확인된 우수한 품질과 안전성, 유효성을 재입증받은 결과”라며 “나보타의 유럽 진출은 글로벌 브랜드로서 나보타의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다음달 미국에서 나보타를 출시하고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업계는 시장점유율 1위인 엘러간(보톡스)보다 약 30% 낮은 가격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출시 직후 공격적인 할인 마케팅도 펼칠 계획이다. 미국과 유럽 시장 수출을 위해 연간 500만 바이알(병) 규모의 보툴리눔 독신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기지도 구축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이지요구르트 '요거플러스'

애널출신 CEO의 역발상

“우유통째로 요거트 만들 순 없나”

우유통에 가열막대 꽂는 방식
美 특허출원으로 해외 진출

웬만한 집 주방 한구석을 뒤져보면 나오는 게 하나 있다. 수제 요거트 제조기다. 사 먹는 것보다 경제적인 데다 설탕 등을 넣지 않아 건강에도 더 낫기 때문에 어린 아이를 키우는 집에선 하나쯤 구비하고 있다. 그러나 몇 번 사용해보고 주방 한쪽에 처박아놓게 되는 건 사용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황윤택 이지요구르트 대표도 이런 불편을 겪었다. '1.8L짜리 큰 우유통을 통째로 가열해 요거트를 만들 수는 없을까.' 13년 경력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이런 궁금증이 우유병 뚜껑을 뚫은 자리에 수축팽윤 유리타더를 꽂는 방식의 요거트 제조기를 개발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이지요구르트의 '요거플러스'는 2013년 서울시민발명공모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유통째로 요거트 만들 수 있어
떠먹는 요거트가 만들어지는 원리는 간단하다. 불가리스 같은 유산균이 포함된 요구르트를 우유에 넣고 유산균이 증식하기 좋은 온도로 맞춰주는 것이다. 유산균이 증식하면서 유당을 먹고 분해한 결과가 바로 요거트다. 요거플

설립	2016년 3월
위치	서울 송파구
제품	요거플러스
특징	우유통에 발열체를 꽂아 발효시키는 요거트 제조기



황윤택 이지요구르트 대표가 28일 서울 송파구 사무실에서 요거트 제조기인 요거플러스의 장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심성미 기자**

러스는 긴 막대기처럼 생긴 제품을 1.8L나 2.3L짜리 우유통에 꽂고 8시간만 기다리면 요거트를 만들 수 있다.

다른 제품에 비해 요거트를 만들기 쉽고 보관과 세척이 간편하다는 점이 최대 장점이다. 황 대표는 “요거플러스는 시중에 나오는 대부분의 우유통에 딱 맞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꽂기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2016년 법인을 설립했지만 첫 시제품은 2017년 5월에야 나왔다. 간단한 제품

처럼 보이지만 개발 과정에선 우여곡절이 많았다. 가장 큰 문제는 온도 제어였다. 8시간 내내 42도로 기기를 돌리면 단백질이 타버려 제품이 늘어났다. 계절에 따라 외부 온도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제품의 맛도 달라졌다. 황 대표는 “우유가 어느 정도 발효되는 시점 직전에 발열량을 확 떨어뜨려주는 방법을 고안했다”며 “계절에 따라 외부 온도가 변해도 일정한 맛을 내도록 제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요거트 기기 전문 회사로 성장할 것”
자금 사정 때문에 지난해에는 제품을 많이 제조하지 못했다. 지난해는 회사 홈페이지와 네이버 등 온라인을 통해 1500개 가량 팔았다. 가격은 8만9500원.

황 대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제품 제조와 마케팅에 뛰어들어 7000개 이상 판매하는 게 목표”라며 “올해 요거플러스 단일 품목만으로 5억원 수준의 매출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요거트 개발 전문 회사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올해는 작은 우유통에 꽂아 사무실에서도 손쉽게 요거트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기기를 내놓을 계획이다. 황 대표는 “30인용 이상 요거트를 만들 수 있는 급식용 기기도 개발 중”이라고 했다.

해외 진출을 위해 미국에 제품 특허도 등록했다. 황 대표는 “미국 시장에도 아직 요거플러스만큼 간편한 요거트 제조기가 없다”며 “키스 등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통해 미국에 진출한 뒤 중국, 일본 등 해외로 판로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 (sjlee@hankyung.com)로 신청받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www.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반대매매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와우스탁론을 만나면 10분만에 고민 해결
(증권사 미수, 신용 대환 가능)

주식투자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중요합니다.**
(믿을 수 있는 파트너 와우스탁론)

• 본인자금의 **최대 400%** 투자가능 • 개인한도 **최고 5억** (최장 5년까지)

- 증권사 신용, 미수 대환가능
- 만기연장 수수료 무료
- 모바일 매매가능
- 중도상환 수수료 무료
- 업계 최저 금리
- ETF 매매가능
- 한 층목 100% 투자가능
- 실시간 추가대출

WOW스탁론
1599-2122
www.wowsl.co.kr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와우스탁론 **WowSL**

WOW한국경제TV

최종삼 홈앤쇼핑 사장의 '감성 리더십'

뉴스카페

중소기업 전용 홈앤쇼핑의 최종삼 사장(사진)이 직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감성경영에 나서고 있다. 직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해야 고객인 중소기업과 홈쇼핑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판단에서다.

홈앤쇼핑은 건강한 조직 만들기 하나로 '한마음 공감 토크(Talk)' 행사를 기획해 분기별로 진행한다. 이 행사는 최고경영자(CEO)와 직원 간 '격의 없는 공감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지난 26일 처음 열린 행사는 총 2부로 나눠 분기별 인센티브 포상, CEO 메시지, 인문학 명사 초청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1부 'CEO 메시지' 순서에서는 최 사장이 직접 경영목표, 방향성, 운영 현황 등을 공유하며 조직구성원과 공감대를 마련하고 소통했다.

2부에 진행된 '인문학 명사초청 특



한마음공간토크 등 소통 강화
매주 금요일 조기퇴근 문화 구축

강'은 직원의 인성 함양과 인문학적 소양 증대를 위해 마련했다. 첫 특강의 강사로 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를 초청했다. '대중음악, 세대소통과 자기혁신'을 주제로 문화를 통한 구성원 간의 소통에 대해 설명했다.

또 모든 직원이 매주 금요일 조기 퇴근하는 '스마일데이'를 2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홈앤쇼핑은 이와 함께 직원들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조직구성원 자율 협의체인 '평직원협의체(Blue Board)'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협의체는 경영현황 공유 및 업무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직원의 목소리를 경영 활동에 반영한다. 또 오프라인 건의체널인 'CEO 토크'를 뒤 내부 직원의 직장 내 애로 사항과 협력사 등 외부 고객의 불공정 사항을 익명으로 청취하고 있다. 사내 총 22곳에 설치돼 2주 간격으로 의견을 접수, CEO에게 직접 보고한 뒤 개선한다.

최 사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채널을 마련해 직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일하기 좋은 일터로 만드는 데 적극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레미콘업계 “품질혁신으로 위기 돌파”

품질관리 책임자교육 개최

레미콘업계가 건설경기 침체 속에 품질관리 강화로 위기 타개에 나선다.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배조웅·사진)와 한국레미콘공업협회(회장 정진학)는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전국 레미콘업체 직원 650여 명을 대상으로 '레미콘 품질관리 책임자 교육'을 개최했다.



국가기술기준원은 레미콘 품질관리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또 인증기관인 한국표준협회에서는 고객 불만이 발생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건설산업에서 레

미콘 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레미콘 공장 점검 절차와 품질관리 매뉴얼에 대한 교육도 이어졌다.

배조웅 회장은 “건설경기 침체와 양질의 골재 부족 등으로 업계가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책임자들이 레미콘 품질 경쟁력을 향상하고 고객들이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건조기·세탁기 등 대형 생활가전 렌탈 확대

현대렌탈케어

현대렌탈케어는 28일 삼성전자 그랑데 의류건조기 2종과 애드워시 드럼세탁기 1종(사진) 등 대형 생활가전 렌탈 상품을 내놓았다.

의류건조기는 각각 14kg, 16kg 용량으로 '하이브리드 히트펌프' 방식이 적용됐다. 전기 히터와 인버터 히트펌프를 같이

사용해 건조하다가 일정 온도에 도달하면 전기 히터는 멈추고 인버터 히트펌프 온도를 유지하며 건조한다. 옷감 손상을 줄이고 건조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애드워시 드럼세탁기는 19kg 대용량이다. 세탁제와 유연제를 미리 넣어두면 세탁량에 따라 세제가 자동 투입되는 '세제 자동 투입' 기능 등을 갖췄다.

약정은 48개월로 사용기간 동안 삼



선정자가 무상 사후관리서비스(AS)를 제공한다. 렌탈 요금은 제품 종류에 따라 3만~4만 원대로 제휴 신용카드를 적용하면 최대 1만8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